

목차

1일차	지구는 내 것이라!/ 시 50:10~12	p.3
2일차	성령이 이 땅에/ 창 12:7	p.6
3일차	만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 98:7~9	p.9
4일차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 8:22	p.12
5일차	은혜와 정의의 기초/ 삼상 2:8	p.14
6일차	마음가짐이 전제된 행동/ 빌 2:5~8	p.18
7일차	거류민과 이방인/ 레 25:23	p.21
8일차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출 19:5	p.24
9일차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단 3:74~76	p.27
10일차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상 16:31~33	p.30
11일차	포괄적 구원/ 욥 2:22~23	p.34
12일차	사랑, 소중히 여김, 양육/ 시 22:28	p.38
13일차	위대한 신비/ 시 104:24	p.41
14일차	우리는 으뜸가는 돌봄이/ 골 1:15~17	p.44
15일차	생명 존중/ 빌 2:5~8	p.48
16일차	변영의 바보들!/ 레 19:9~10	p.51
17일차	우리의 걸음에 깨어/ 살전 5:6	p.54
18일차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면 빨리 죽을 것이다!/ 창 2:16~17	p.57
19일차	하나님 - 거기 그리고 여기에/ 창 28:16	p.60
20일차	티끌 한 점/ 단 4:3	p.63

21일차	거룩, 거룩, 거룩/ 사 6:3	p.66
22일차	지구의 우주적 자궁/ 창 1:9~12	p.69
23일차	기르신 대로 기르다/ 시 139:13~15	p.72
24일차	두 책을 동시에 읽기/ 롬 1:20	p.75
25일차	한계: 생명을 위하여/ 창 3:22	p.79
26일차	탄식과 대응/ 창 4:12	p.82
27일차	폭 넓은 관대함/ 집회서 7:32~33	p.85
28일차	다스림=섬김/ 창 1:28	p.89
29일차	생태적 나르시시즘/ 시 8:5~8	p.92
30일차	나의 작은 집/ 시 24:1	p.96
31일차	좌초된 지속력?/ 레 2:7	p.99
32일차	문화는 아침마다 믿음을 먹는다/ 롬 12:1~2	p.102
33일차	동시에 위아래를 보기/ 신 10:12~14	p.105
34일차	환경 기도문/ 마 6:9~13	p.108
35일차	지속성을 위한 자각/ 롬 1:20	p.111
36일차	배제적이 아닌 포괄적인 언약/ 창 9:12~15	p.114
37일차	무지개 약속/ 창 1:31	p.117
38일차	태도 혹은 정치를 바꿀 것인가?/ 롬 1:20	p.121
39일차	한계 없는 죽음/ 창 2:16~17	p.124
40일차	시간이 되었다/ 전 3:1~2	p.126

지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임과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남호주연합교회의 2019년 사순절 40일 묵상 자료(바로 지구, JUST EARTH)를 번역한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 지구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려는 이들에게 잘 활용되어, 신음하는 지구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로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료 번역은 김기석 총장님(성공회대학교)과 유미호 센터장(살림)이 공동 진행한 성공회대 신학대학원의 '창조보전과 생태사상' 수업에서 계획지, 광무호, 김성완, 박준현, 안소망, 안효민, 이세희, 이영직, 정근재 님이 토론을 위해 각자 맡은 부분을 번역,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자료화한 것입니다.

다듬는 일로 수고해주신 안소망, 고유경 님, 그리고 수업을 하며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김기석 총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 10. 23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읽기]

시편 50편 10-12

숲 속의 뭇 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의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것을 대하는 방식까지 결정됩니다.

만약 산은 신성한 것이고 단순한 광석 더미가 아니라면, 만약 강물이 땅의 혈관이고 개발 가능한 관개용수가 아니라면, 만약 산림이 신성한 수풀이고 목재가 아니라면, 만약 다른 생물 종이 우리의 생물학적 친족이고 식량자원이 아니라면, 혹은 지구가 우리의 어머니고 우연한 곳이 아니라면…… -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과제입니다. - 즉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 데이빗 스즈키(David Suzuki)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기억하십니까? 영화중에 선생님이 교탁 위에 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 책상에 올라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만일 생명을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핵심과 풍요로움을 아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닌 토속적 영성은 창조물 - 즉 산림, 산맥, 들판, 수많은 구름들 - 을 살아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의 영을 드러내며, 창조주 영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면의 눈을 뜨고 생명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용]

만약 모든 인류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1만 년 전의 풍부한 평온의 상태로 재생될 것이다.
곤충들이 사라진다면, 환경은 혼돈의 상태로 붕괴될 것이다.

-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구성요소와 힘과 연계되어 있다.

- 노먼 하벨(Norman Habel)

우리는 방대한 땅을 온갖 생명이 거주하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 버렸고, 현재도 생태학적인 '아마겟돈'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곤충이 소멸된다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 데이빗 굴슨(David Goullson)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번영이라는 것은 지구의 회복 불가능한 자원을 급속히 소모한 결과물이다.

- 앨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행동]

당신이 이용하는 자선단체나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요청의 글이나 통지문을 종이 형태로 보내지 말라고 전하십시오.

[기도]

나무의 휘파람 해거름에 있고
대지의 노래는 여명에 있어,
영을 소생시키는 소리되게 하소서.
찢긴 가슴 다시 싸매는 축복되게 하소서.

- 빌헬름 하벨(Wilhelm Habel)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망가뜨려
죄송해요.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마다 기름을 쏟아
죄송해요.

자동차 매연,
산성비와 그로 인한 피해
죄송해요.

동물과 그들 집을 없애버렸고,
길가에는 쓰레기 널렸으니
죄송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제럴딘 머피(Geraldine Murphy), 10세

[읽기]

창세기 12: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하셨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구약성경에서 보여주는 땅에 대한 우세한 견해는 땅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놓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얼마나 많은 유산과 생명을 잃었습니까?

호주의 원주민들은 땅과 인간이 매우 밀접하고 독특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셰리 발콤 (Sherry Balcombe)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Spirit)으로 태어났고, 이 땅은 우리가 잉태된 곳이며, 우리의 집이며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지구는 우리 어머니이며, 이는 지구에 대한 가장 알맞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영,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머니인 지구를 존경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의 생존문제와 지구를 우리 어머니로 만드신 창조주이신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땅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신성함을 전합니다. 땅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송라이인(Song lines) 송라인 :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꿈의 발자취’로 여겨져 온 보이지 않는 길로써 하나의 노래형식. 땅을 묘사하는 노래형식으로 수백킬로미터가 떨어진 곳도 찾아갈 수 있도록 음악 속에 그린 지도.

꿈,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 땅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 땅은 수 천 년 동안 우리를 지탱하고 이끌어 온 가족입니다.”

이 원주민들의 문화와 같이 신성한 것의 한 강한 의미를 서양문화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화에서 신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삶과 생활방식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이끌어 줄 신성함을 회복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인용]

창조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멋진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끼고 항상 큰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만인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

우리는 토착 여성들과 토착민으로서 기후변화를 막고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지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 타르실라 리베라(Tarcila Rivera)

지구의 가장 좋은 점은 구멍을 뚫으면 기름과 가스가 나온다는 것이다.

- 스티브 스톡맨(Steve Stockman)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만물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라. 하나님은 만물에 계시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 마이스터 에크하트(Meister Eckhart)

[행동]

정원에서 더 많은 토종 식물을 재배하여 물 사용량을 줄이고 새, 나비와 곤충에게도 먹이를 제공해 주세요.

[기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로 찬미와 감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현존하는 모든 것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당신처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민을 갖게 하소서.

아멘.

오, 독수리여, 맑은 하늘에 날개를 활짝 펴고 오라.

오, 독수리여, 와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오, 당신의 온화한 평화를.

오, 독수리여, 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오.

하늘의 원을 기억하라.

별과 갈색 독수리와 태양의 위대한 생명,

둥지 안의 어린 생명을 기억하라.

만물의 신성함을 기억하라.

(파우니족의 기도)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라.

[읽기]

시편 98:7-9

바다도, 그 속에 가득한 것들도, 땅도, 그 위에 사는 것들도 모두 환성을 올려라.

물결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다 같이 환성을 올려라

야훼 앞에서 환성을 올려라.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다.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만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리라.

종종, 공기가 선선하고 잔디는 빛나며 하늘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전율의 순간들이 있습니
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기쁨이 그 존재 자체로 드러나고 있음에 발길을 멈추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온 땅이 해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었음에 하나님께 찬양의 노
래를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고, 대양에는 플라스틱 터미가 표류하고 강물은 마르고 빙
하는 녹고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다는 계속 화답하고 강물은 손뼉
을 치며 산들은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이 말하는 지침에 따르자면, 다가올 후 세대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 중 누가 올바르고 공정한 백성이란 말입니까?

[인용]

산과 강물 모두 살아있는 것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하늘과 해 그리고 달과 구름 모두가 인간을 치유하고 유지시키는 성스러운 존재를 이루고 있으며, 물리적 유익만큼이나 심리적 일체감을 필요로 한다.

-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과거에 교회는 그렇게들 행동했다. 가령, 노예제를 찬성할 때처럼. 물론 만장일치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노예를 소유했거나, 해방을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 폴 쿡(Paul Cook)

인간의 모든 제도, 직업,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은 상호간에 증진되는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성을 억제하고 무시했는지, 아니면 잘 조성했는지의 정도에 따라 우선 판단될 것이다.

- 웬델 베리(Wendell Berry)

우리는 지구를 별무리 중 하나나 임시적인 거처 정도로 당연히 받아들여 왔다.

- 노먼 하벨(Norman Habel)

[행동]

분기별로 하루씩 육류 섭취가 없는 날을 늘려보세요.

[기도]

놀라우신 하나님.
당신의 지구
그 위엄에 감사하나이다.

나무와 강 그리고 초목들을
당신이 지으신 줄 압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미풍이
우리의 공동의 집을 생각하게 하는
부드러운 신호가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기]

창세기 8:22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모든 창조물들은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든 다른 창조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창조물의 변화는 다른 창조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창조의 한 부분을 손상시키면 우리는 전체 창조물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식물 또는 동물, 곤충 또는 미생물은 창조의 생태계에서 특정 역할을 합니다.

창조의 생태계에서 가장 진화된 종인 인간은 포식자나 약탈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창조물을 돌봐야 할 특별한 책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정의를 향해 힘차게 일어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창조를 더 깊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의 위기에 열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 성녀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of Bingen)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명과 자연세계의 많은 부분의 붕괴는 곧 일어날 것이다.

- 데이비드 애틀버러(David Attenborough)

지구는 호모 사피엔스 출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 맥스 위슨(Max Whisson)

유일한 해결책은 기독교 신앙을 죄의 구원이라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역사적, 생태적 맥락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폴 콜린스(Paul Collins)

[행동]

운전할 때 마다, 가능한 많은 일을 수행하여 주행거리를 줄이십시오.

[기도문]

창조의 하나님,

당신은 밤과 낮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창조의 위엄에

다시 연결되게 하소서.

- 호주 카리타스(Caritas Australia)

[읽기]

사무엘상 2:8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잣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혀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밑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기도문(엘리사벳, 마리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된 한나의 순수한 기쁨은 가난한 자들과 내버려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와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과 사회정의 간의 연결이 1970년대에야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모친은 가난한 이들과 내버려진 자들의 궁핍함에 대한 연결점을 세계창조의 가장 큰 원리를 지닌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마치 하나님 창조의 기본 원리처럼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창조라는 직물을 찢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고통 받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과 내버려진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돌봄과 공의는 떨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새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모든 창조의 온전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연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용]

우리는 환경적이거나 사회적인 위기를 둘로 분리하여 대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이라는 하나의 복합적 위기로 대한다.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는, 가난과 싸우고 힘없는 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와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는 총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

우리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지 않고서 인간 형제자매들을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에드워드 R. 브라운(Edward R Brown)

취와 바퀴벌레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법칙 아래 경쟁을 벌이며 살고 있다. 한편, 공의와 자비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다.

- 웬델 베리(Wendell Berry)

환경운동의 일부인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 문제점에 대하여 침묵해왔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였다.

- 크레이그 솔리(Craig Sorley)

지구에 대한 점령과 파괴적 관계는 성, 계급 그리고 인종차별과 연결되어있다. 그렇기에 지구에 대한 치유의 관계성은 단지 기술적인 '수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남성과 여성

간, 인종과 국가 간에, 삶의 수단에 접근하는 큰 격차가 자명한, 현재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집단들 간에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환경-정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지구에 대한 다스림이 사회적 우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 로즈매리 래드포드 루에터(Rosemary Radford Ruether)

[행동]

인터넷이나 요리책에서 훌륭한 채식 레시피를 찾아서 그것을 사용해 보세요!

[기도문]

자애로우신 하나님,
지금 고통 받는 이들과,
또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고통 받을 미래 세대와의
연대감을 우리 안에 심어 주소서.

이익에 앞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소유'에 앞서 '존재'를 보게 하소서.

자애로우신 하나님,
지금 고통 받는 이들과,
또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무책임으로 인해 고통 받을 미래 세대와의
연대감을 우리 안에 심어 주소서.

이익에 앞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소유'에 앞서 '존재'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읽기]

빌립보서 2:5~8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대상과 관계하는 방식(이용하거나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행동보다 우선합니다.

폴 생귀(Paul Sanguin)은 저서 『다윈, 신성과 우주의 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기 밖에’ 세상을 내다보는 ‘여기 안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이원론은 지구가 우리의 소유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왔지만, 생명의 영적 진실이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방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구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가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고, 우리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느낀다면, 지구를 물건처럼 여기고 상품화하게 되며, 숲을 보고 목제의 규격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알비노 무스(albino moose)를 소총의 조준경을 통해 보는 것은 경외할만한 신성한 창조물로 보지 못하고 벽에 매달릴 뿔 한 쌍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보살핌과 헌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얼마 전에 퇴역군인인 푸주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역시 도축에 대한 나의 동정심에 놀라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후에 그는 내 말에 동의했다. “특히 온순하고 길들여진 것들이 들어 올 때면 더 불쌍합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부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자신의 높은 영적 능력- 자신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자신의 감정을 침해하며 억압하는 것이 잔인하다.

-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

모두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하기에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나, 어디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

우리가 변화한다고 좋아질 것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게오르그 크리스토프 리히텐버그(Georg Christoph Lichtenberg)

승고한 대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후세에 살아갈 사람들

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행동]

상점에 가위를 가지고 가서, 비닐봉투를 잘라, 상점의 계산대에 맡기십시오!

[기도문]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도록 도와소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소서.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하소서.

변화의 고통과 함께하게 하소서.

변화의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도착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도

여정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온화한 혁명의 기술입니다.

아멘.

- 마이클 루닉(Michael Leunig)



거류민과 이방인

[읽기]

레위기 25:23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바로 잡아주는 개념 인지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 존재가 늘 존재할 것 같고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는 실제로 거류민 -또는 이방인- 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 곳에 있지만, 내일은 사라집니다.

반면, 땅은 모든 시대 모든 형태의 생명을 위한 삶의 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거주한 것은 언제나, 다만 하나님의 은총과 선하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히브리인 농부란, 그 삶과 작업이 궁극적으로, 땅의 주인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한 사역 속에 있는 소작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세계와 동반자로서 삶의 여정을 나누기보다, 식물이나 동물의 삶 위에 우리 자신들을 두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선물인, 이 깨지기 쉽고도 비옥한 지구에 동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인용]

당신의 발길이 대지와 입 맞추듯 걸어보라.

- 틱낫한(Thich Nhat Hanh)

인간은 땅을 단지 공유할 뿐이다. 우리는 땅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소유하지 못한다.

- 시애틀 추장(Chief Seattle)

우리는 그 무엇보다 (원주민들)에게서 배운다. 즉 땅은 소유될 수 없고 땅의 기운(Spirit)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와 그 안에 머무는 모든 것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속해있다. 우리는 서로서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 조화를 창출하는 것이 대부분 토착 신앙에서 중심 사상이다.

- 리처드 로어, 작은형제회 수사(Richard Rohr OFM)

우리는 거주지, 강 그리고 삶의 지속성을 위한 지킴이들(guardians)이다. 우리는 달의 주기, 할머니들의 영성,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의식들의 비밀에 대해 이해한다. 따라서 한 회사가 들어와서 그 사회 구조와 공동체의 상징성을 파괴하려 든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너무나 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막고자 모인 것이다. '여성 지킴이들(Women defenders)' 단체는 많은 공헌을 하지만 그 인지도는 약한 편이다.

- 안나 마리아 에르난데스(Ana Maria Hernandez)

[행동]

여름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사용해 보세요. 전력 사용도 줄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니까요.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서 햇빛을 막고 집안을 식히려면 요리도 즐겨보세요.

[기도]

창조주 하나님이지여,
각각의 나뭇잎, 꽃잎, 곡식, 사람이 모두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의 영이시여,
지상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산과 큰 바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도, 욕망의 손길은 당신의 영화로움을 점유하고 약탈하고 있고,
당신의 은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머쥐고 있으며,
지구의 객이 아니라 주인인 양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빙하는 갈라지고, 강물은 마르고,
계곡에는 홍수가 터지고 산봉우리 눈은 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 존경심과 사랑을 지니고
부드럽게 내딛는 법과 단순히 사는 법과 가볍게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소서.

- 린다 존스(Linda Jones)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읽기]

출애굽기 19:5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키다면, 너희야말로 뭇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소유를 향한 마음가짐은 슬픈 생각입니다. 나는 최근에 한 아이가 자기 부모가 새 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광고를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아이는 그 차를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거듭 말합니다.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아마도 안정감을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은 이것과 상반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서로 풍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정한 영적 인정이 그런 삶에 해당합니다.

[인용]

교회를 위한 참된 회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속한 곳에 되돌려 놓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자 주님으로서 두는 것이다.

- 무명(Anon)

메시지는 분명하다! 온 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지구는 성막과 신전과 같아서 창조주 영으로 예배하는 성스러운 곳이다. 지구는 원주민 세계의 올루루와 같은 성지인 코스모스의 반짝이는 영역이다. 지구는 숭배 받을 신성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숭배하도록 초대받는 신성한 장소다.

- 노먼 하벨(Norman Habel)

당신이 뭔가를 사는 방식은 당신이 숭배하는 방식과 당신이 숭배하는 주체와 당신이 숭배하는 대상과 많은 관련이 있다.

- 윌리엄 티 카버너프(William T. Cavanaugh)

[행동]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정치인에게 좋은 환경 정책이 긴급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세요. 소규모단체가 이 일을 연대해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서
너무 탐욕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부끄러워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이 당신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공경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창조세계에 대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과 공포를 없애소서.

창조세계와의 조화 속에 우리가 단순하게 살도록 하소서.

우리가 자기희생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모든 창조물을 돌보는

좋은 청지기가 되도록 도우소서.

- 호주 '카리타스'(Caritas Australia)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읽기]

다니엘 3:74-76

땅이며,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산과 언덕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땅에서 자란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이 세상이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 인간이 몸부림치는 무대에 불과하다면, 대지, 바다, 공기, 물고기, 새, 곤충, 포유류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구와 그 위에서 자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해했다라면, 그 곳을 쓰레기 -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오염 물질과 유독 물질- 로 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서의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요한복서 21:1)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속, 해방, 그리고 구원은 창조세계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인용]

온 우주가 함께 신의 선하심에 더욱 완벽하게 참여하고 있고, 개별 피조물보다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 달라이 라마(Dalai Lama)

선교 자체는 사람 뿐 아니라 그 외의 피조물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저 천국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돌보는 것이다.

- 데이브 부클리스(Dave Bookless)

구원이란 모든 창조세계를 향한 것이고, 창조 세계는 구원의 장(場, place)이다.

- 샬리 맥퍼그(Sally McFague)

성서의 첫 페이지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새와 물고기와 동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실한 징표이다. 인류만의 신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

[행동]

미리 계획하여, 집박을 나설 때 식수를 용기에 담아주세요.

다시는 병으로 판매하는 생수를 사지 않기로 다짐해요!

[기도]

오 하나님, 모든 살아있는 것들, 우리의 형제인 동물들과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이 땅을 집으로 주셨나이다.

과거에 우리가 사람의 우세한 지배력을 매정하고 잔인하게 행사했던 부끄러움을 기억하

나이다. 그리하여 당신께 노랫가락이 되어야 할 그들의 소리가 고통의 신음소리가 되어왔
나이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와 치유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 대성인 바실리우스(St. Basil the Great)의 글로 추정됨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읽기]

역대기상 16:31~33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야훼께서 등극하셨다.”하고 만방에 외치어라. 바다도, 거기 가득한 것도 다 함께 기뻐 뛰어나. 숲의 나무들도 환성을 올리어나. 야훼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다.

어떤 새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모든 것은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슬픈 현실은 우리가 어떤 동물을 탐욕스럽게 사냥하고, 다른 창조물들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바다 속의 다른 것들을 오염시킴으로써, 자연의 합창 소리가 점차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소비욕구는 숲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강한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염과 과도한 포획으로 인해 바다는 더 이상 울리지 않고, 들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자신과 신의 선한 창조와 미래의 지구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인용]

창조의 수호자, 자연 속에 새겨진 신의 계획의 수호자, 서로의 보호자, 환경과 창조물의 보호자가 되자. 파괴와 죽음의 징조가 이 세상의 앞길에 동반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자!

-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

데스몬드 투투는 우리가 '적응적 아파트헤이트(인종차별)'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세계가 기후 변화 효과에 적응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도로시 보어즈(Dorothy Boorse)

자원훼손, 소비자옹호, 공해확산과 함께 세상에서 교회가 죽어가는 동안 실제로 암으로 물든 교회에 성이라는 이름의 종기에 대한 분석과 처방에 몰두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대부분 분파들을 보고 몹시 실망했다.

- 무명(Anon)

대자연은 집단 사육, 울타리 사육, 약물 사육에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한다.

-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eres)

우리는 왜 집과 병원대기실 등에 자연의 사진을 걸어둘까? 자연이 치유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치료제이다.

- 밥 브라운(Bob Brown)

[행동]

집에서 자연의 공기순환을 이용하세요. 여름밤에 문과 창문을 열어 집을 식히고, 다음날 아침 문을 닫으세요.

[기도]

주님,

우리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돕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단순하고 평화로운 곳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러한 곳을 찾게 하소서.

자연의 진리와 자유가 있는 곳,

기쁨의 영감과 회복이 있는 곳,

모든 생명체가 받아들여지고, 속하는 곳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다른 존재 안에서

이러한 장소를 찾게 하소서.

우리가 그 장소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보호하며

그런 장소들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의 내적 생명의 진리에 따라
이 바깥세상을 바로잡고
자연의 영원한 지혜로
우리의 영혼이 형성되고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 마이클 루닉(Michael Leunig)